

김민혜 개인전: 튀어오르는 파랑공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개인전 《튀어오르는 파랑공 Bouncing Parangon》에서 김민혜는 고정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궤적을 형태로 소환하고, 연결한다. 제목 속 ‘파랑공’은 사르트르의 자서전 『말』에 등장하는 ‘Parangon’을 차용한다¹. 어린 시절의 사르트르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책들로부터 생경한 단어들을 발견한다. 단어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는 별개로, 글자의 형상이나 음절들이 그 자체로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던 정보나 이미지들과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연히 아름답게 발현된 얼룩에 감탄하듯, 사르트르는 단어를 의미 전달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고 끝없이 탐구할 수 있는 개체로 여겼다.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찾는 일은 사르트르가 단어의 형태와 음절로부터 발견했던 아름다움을 직접 구축해보는 것이 아닐까? Parangon은 한국어 번역본에서 프랑스어의 발음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듯 ‘파랑공’이라고 적혔는데,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음절 그대로 발화하는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역자의 시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어의 의미는 ‘모범’ 혹은 ‘전형’이지만, 김민혜는 ‘파랑공’의 음절로부터 우연히 솟아오른 구체의 이미지, 형성, 운동성, 가변성 그리고 공이 날아가거나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궤적과 흔적들을 떠올리게 된다. 김민혜는 심상 속에서 부지런하게 이동하는 공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추적하며, 이를 조형/조각적인 시도를 통해 전시장에 드러낸다. 의미를 좇기 보다는 각기 다른 단어/형태/물질과 같은 정보가 충돌하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도출되거나, 연결되어 무리를 짓는 것 처럼 우연과 필연의 유기적인 얽힘을 자연스럽게 펼쳐낸다. 이 과정에서 전시장은 조각이 놓이는 시공간적 발판이자, 작업의 흐름이 숨을 고르거나 연장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된다.

비움과 채움

미술은 물질과 공간, 감각과 시공간 속에서 흘날리고 얽히는 비가시적인 사건들을 가능할 수 있는 부피로써 마주하게 한다.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부재하는 것들을 감각하게 한다. 김민혜의 조각은 매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조형적 실험을 통해 문득 떠오르는 것,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있지만 영원히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 하나의 사건이 가진 여러 시간성과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보게 한다. 가변적인 움직임이 부피를 가진 형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작업이나 그 과정에서 나온 잔여물이 새로운 작업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특정 공간의 특징을 관찰하고, 노화나 인지되지 못한 작은 마찰들이 발생시킨 요철과 균열 등을 자신만의 형상으로 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조각과 조형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재료를 다양하게 실험하며 작업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다. 작업은 작가가 체득한 감각이 심상과 손길을 거쳐 마침내 가시화되는 현상일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해진 것들이 손길을 통해 형태로 나타나고, 캐스팅 작업을 통해 부피를 얻는다. 반복되는 형태 사이에 조금씩 발생하는 오차는 조각들에게 개별성을 부여한다. 상반된 매체의 충돌은 오히려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한 범위의 변수와 가능성을 드러낸다. 수많은 유일무이한 존재들이 거대한 시공간 속에서 스치거나 뭉쳐진다.

조각은 무엇을 상상하게 할까? 건물의 파사드는 그 이면에 연장되어 있을 시공간을 상상하게 한다. 조각은 형상으로 뭉쳐지기도 하지만,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들의 빈자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전시되었을 때는 평면(plane)의 한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공간을 전환하기도 한다. 김민혜의 작업 속에서는 매끈하거나 부드럽고, 견고하거나 유약하며, 단단하거나 말랑한 물성을 가진 재료들이 서로 상반된 성질을 보완하듯 균형 있게 자리를 잡는다. 납작한 드로잉 속 형태들은 조각 작업을 통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으며 부피를 갖게 되고,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를 반사하는 작업인 알루미늄 블록 <간조>(2024)와 석고 블록 <만조>(2024)로 거듭나기도 했다.

¹ “문장들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게 저항을 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슬쩍 가 버리는 척하다가 번갈아가 되돌아와서, 그것들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꼭 사로잡아야 했다. (...) ‘파랑공(Parangon)’ 등, 카프라리아(Kaffraria) 말처럼 아득하고 알 수 없는 슬픈 단어들이 책장을 쫓힐 때마다 튀어나오고, 이런 말과 맞부딪치기만 하면 한 단락 전체의 뜻이 박살 나는 것이었다.” 장폴 사르트르, 『말』, 세계문학전집 189, 정명환 역, p.43.

바닷물이 모조리 빠져나간 간조의 해안가에는, 만조 때 차 있던 물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는다. 채움과 비움은 서로의 요철을 퍼즐처럼 매우며 존재한다. 김민혜는 간조와 만조로부터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서로 포개어지는 형태를 떠올렸다. 작가의 손길을 통해 켜켜이 쌓이고, 노트 위에 납작하게 압축된 시간은 캐스팅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안과 밖을 전환한다. 닭과 달걀의 선후를 따지듯, 작업의 시작과 완결을 따지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그의 작업에서 완결은 또 다른 시작이다. <총돌구>(2024)는 파랑 공의 움직임을 담은 몰드로부터 캐스팅된 석고 조각들을 볼트와 너트를 통해 잇거나 개별적으로 놓은 작업이다. 흐름이 있는 설치 작업으로서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를 닮은 반복되는 형상들이 공간과 균형을 이루며 균집을 이루거나 흩어져 설치되어 있다. 몰드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온 작업이 복제가 아닌 각자 개성을 지닌 부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잘려나간 아이소핑크나 드로잉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곳곳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수들 때문일 것이다. 변수들은 부분에 개별적인 시간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각자에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각각의 부위들이 하나의 틀을 통해 형체를 나누며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도 한다. 김민혜의 조각은 정답을 정해놓고 제시하기보다는, 작가가 체득한 움직임과 사유를 얹고 서는 시선과 동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르게 함으로써, 관객을 작업의 일부로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부인과 전체

김민혜의 작업은 기승전결을 따르기보다는, 시작과 끝 없이 모인 단상들이 전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단상은 여러 갈래로 확장되고, 완결은 또 다른 시작이 된다. 눈과 몸이 기억하는 이미지들을 조각적인 직관과 실천을 통해 드러낸다. 다시, 작업은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면서, 전시 공간에서 함께 배치될 때는 하나의 조화로운 집합체를 이루며 새로운 장면을 구성한다². 작업 사이에 행간을 주고, 정해진 서사를 제시하기보다는 작업의 물성과 흐름을 따르며 관객만의 동선을 찾아 나가게 한다. 이러한 작가의 전개 방식을 힘있게 드러내는 요소는 작가가 드러내는 작업의 궤적일 것이다. 궤적(**trajectory**)은 물체가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이면서 그려낸 경로를 뜻한다. 작가는 반복되는 듯하지만 섬세하게 변화하고 은근한 오차가 발생하는 형태에 주목한다. 가령, 유연한 뼈(2021)는 작가가 움직인 자리에 남은 궤적 위에 왁스를 발라 부피를 더하고, 브론즈 주조를 통해 견고한 형상을 부여한다. 감각으로만 존재하던 궤적이 조각적 실험을 통해 부피를 가진 형상으로 소환된다. 나아가, 유연한 관절처럼 길게 이어진 조각은 공간을 만드는 테두리가 되거나, 반으로 나누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며 동선을 새롭게 형성한다.

김민혜는 예측할 수 없는 작은 인간의 말과 움직임,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작은 인간을 돌볼 때 발생하는 소소한 제약³ 속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해한 재료를 쓰지 않고 최소한의 동선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을 전개할 수 있는 매체로서, 작은 노트에 드로잉 작업을 시작했다. 김민혜의 드로잉은 포착한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발견한 재료와 요소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듯 형상을 찾아 나간다. 회화가 평면을 창구삼아 그 이면의 서사로 파고들게 하는 한편, 김민혜의 드로잉과 회화는 납작한 조각을 빚어내듯 자라난다. 납작하게 시작된 형태는 추후에 주조되기도 하고, 더 큰 규모의 작업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파편들은 작가의 손길을 거치며 하나의 면이나 질감, 혹은 새로운 형상의 물체로 집합된다. 파도에 부딪히며 끊임없이 변형되는 백사장처럼, 다양한 물성들은 작가의 작업 안에서 충돌하거나 서로 이끌리며 새로운 균형을 이룬다. 완성된 작업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들은 다시 새로운 작업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빚어진 조각들은 납작하게 누여 무대가 되거나 그 위에 놓이며 다시 서로에게로 연장된다⁴. 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파편들이나 단상들을 토대로 제작된 풀라주 드로잉들을 중심으로, 조형적인 결과물들을 파생한다.

² “조각은 때로 그 자체로 서 있기도 하고, 전체의 부분이기도 하고, 이차원에서든 삼차원에서든 공간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Z-Colony>(2021)에 대한 작가노트, 김민혜.

³ 육아

⁴ <물이 모이는 곳>, 2024, 알루미늄 판 위에 수성 스프레이, 점토, 고무판, 금속 추, 240x400x30cm

끝과 시작

김민혜는 상반된 매체가 충돌하거나 맞물리며 생성되는 관계성과 결과물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필연적 형상들을 다양한 매체로 탐구한다. 생경함은 익숙함 사이에 스며 있다. 김민혜는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서서히 쌓이고 돌출되는 미세한 변화들에 주목한다. 동일한 형상을 반복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힘의 섬세한 배분 같은 엄격한 틀이 요구되지만, 완벽한 복제는 사실 기계조차도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틀(mold)에 찍어낸 조각들도 온습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수축하거나 틀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마찰로 인해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김민혜는 조형을 드러내기 위해 반복하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섬세한 오차들을 유연하게 수용한다. 이러한 오차들은 오히려 느슨한 연결점이 되어 개별적인 조각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게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바라보게 하기도 한다⁵. 전시장의 작업들은 서로가 서로에게로 이어져 있다 — 닳은 듯 다른 모습으로, 밀어내는 듯 당기는 호흡으로, 충돌하는 듯 서로를 품으면서 말이다.

태어나 엄마의 몸에서 분리될 때 과일의 꼭지처럼 끊어져 안으로 말려 들어간 배꼽이, 이번엔 나의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인간에게로 이어진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작은 점으로 나타난 인간은 울렁임으로, 빠른 심장 소리로, 작고 큰 진동으로 존재하다가 지금껏 연습하고 배워 온 세상을 뒤집어 보게 하는 변수로서 등장한다. 나를 재료와 틀로 삼아 태어난 작은 인간은 나를 똑 닮았음에도 쉽사리 예측되지 않는다. 나/너는 누군가의 결실이자, 시작이다. 부모가 되는 경험은 작업을 이어 나가게 하는 충동과 열망을 닮았다. 인간의 삶이 파생으로 시작해 독립을 통해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작업은 작가가 소중히 여기는 삶의 단면들과 감각들에게 특별한 형상을 부여하고 꾸준히 현존하게 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김민혜 작가의 작업은 각각이 온전한 개체로서 존재하면서도 서로의 시작이자 파생물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의 조형적 실천에서, 조각은 회화처럼 납작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필적을 통해 운동성을 띠기도 하며, 때로는 음각과 양각처럼 서로 저항하는 형태와 매체들을 통해 오히려 매끈한 합을 상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의 작업에서 차원은 작업이 드러내는 궤적을 따라 팽창하거나 압축되며 유연하게 존재한다.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세계가 튀어오르는 파랑공의 동선을 따라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문소영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큐레이터)

⁵ <충돌구>, 2024, 석고, 볼트, 너트, 와셔, 가변크기